

숨 막히는 여름...택배·급식노동자 폭염 속 ‘극한 노동’

택배·배달 등 “낮 시간은 생지옥”
땀 줄줄 흘려도 배송 멈출 수 없어

급식노동자들 뜨거운 불 앞 작업
한증막 주방서 숨쉬기도 어려워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 보호 위해
휴식 보장 제도·쉼터 조성 등 절실

1일 낮 12시께 택배 노동자 정태연(46)씨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택배를 나르며 땀 새 없이 뛰어다녔다. 그의 이마에는 미처 훔쳐낼 새도 없이 땀줄기가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씨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했지만, 숨하고 더운 날씨에 얼마 되지 않아 옷이 땀으로 폭 젖었다. 정씨는 “죽을 맛이다. 이렇게 습한 날에는 차라리 비가 왔으면 한다. 계단을 오르내릴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서 여름에 하는 작업은 속옷까지 다 젖는다고 생각하고 일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반까지 총 267개의 택배를 배송해야 했던 정씨는 점심시간도 없이 집에서 싸온 빵과 떡으로 요기를 때운 뒤 다시 택배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었다.

정씨에게 폭염속 유일한 피난처는 배송지를 잠시 이동하는 순간 에어컨이 틀려져있는 차량을 운전할 때 2~3분 뿐이다.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배송은 멈추지 않는다. 정

씨는 “노조에서는 ‘미배송 후 휴식’을 권고하긴 하지만 하루 물량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날 차량에 짐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스 불 앞에서 200인분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도 폭염에 지쳤다.

같은 날 광주시 북구청의 구내식당 내 협소한 주방에서 급식노동자 8명이 200인분 가량 음식을 만들고 배식하는 분주한 모습이었다.

배식 중에도 부족한 음식을 만들고, 압력밥솥 밥을 추가로 하느라 가스 불 3개는 모두 켜져있었다. 큰 선풍기와 주방 벽면에 2대의 선풍기가 걸려있지만 급식노동자들의 땀방울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방은 종일 뜨거운 가스 불과 설거지를 하기 위한 뜨거운 물로 마치 한증막 같았다. 공간이 협소해 더위가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급식노동자들은 아이스 목 밴드를 차거나 조끼에 아이스팩을 넣어 더위를 식히며 일했다. 노동자들은 잔반통을 들어 이동하고 허리 펴 새도 없어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왔다.

이들 급식노동자들은 복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한다. 음식 조리가 마무리되는대로 보통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점심식사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 음식 조리 시간이 매번 달라 식사하고 잠깐 쉬기까지를 보통 30분 안에 해야 한다.

김길자(여·66)씨는 “여름에 뜨거운 불 옆에서 일하니 온 몸에 땀을 흘려 얼음조끼, 넥아이스 착용하고 냉커피를 마시면서 일한다”며 “35도가 넘는 밖에 서 있다고 해도 온 몸이 땀에 젖지는 않지 않



나. 차라리 땀이 더 낫다”고 말했다.

조은영(여·67)씨는 “실 공간이 없어서 주방 뒤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밥 먹을 때에야 비로소 앉아서 쉴 수 있다”며 “잠깐이라도 누워서 쉴 틈이 없고 무척 덥지만, 제 시간에 밥을 지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불판처럼 뜨겁게 달궈진 도로를 매 시간 달리는 배달노동자들도 숨 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6년째 배달노동자로 일하는 김현우(27)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쪽 배달을 하고 있다. 퇴약원에서 땀이 잘 빠지지 않는 헬멧을 쓰고 타는 걸



택배 노동자 정태연씨가 1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택배를 나르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다.(왼쪽) 같은 날 광주시 북구청 구내식당에서 급식 노동자들이 아이스팩을 넣은 조끼를 입고 작업 중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방지하기 위해 레깅스, 팔 콜로서를 입고 주행하지만 하루 종일 햇빛을 쬔면 몸이 빨갛게 올라 잠 못 잘 정도로 아픈 날도 많다고 한다.

요즘처럼 35도를 넘나드는 폭폭 찌는 날씨에는 1시간을 배달하면 30분을 쉬어야할 정도로 힘들지만, 쉬는 시간이 여의치 않고 잠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목을 축이는 게 전부다. 쉬는 시간 규정이 있지만 지켜지기 힘든 현실인 것이다.

김씨는 “두꺼운 헬멧을 쓰고 뜨거운 도로를 달려 배달할 때면 ‘물이 있으면 바로 빠지고 싶다’는 생각을 매번 한다”며 “도로 주행할 때는 바람이라도 맞아 그나마 낫지만, 신호등 앞에 기다리면서 헬멧

에 노출될 때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들처럼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 보장 제도와 시설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폭염도 산재다. 법 취지에 맞춘 모든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 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제대로 휴식할 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등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확대 등 제도 정착까지 현장 인식 개선·감독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대검 차장 노만석·광주고검장 송강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검찰 고위간부들이 출사퇴를 한 데 이어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와 대검검사급 검사 4명·고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30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된 것이 대표적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07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이름을 알렸으며 2018년 5월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송강 광주고검장



임은정 동부지검장

임 검사의 경우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사장에 올라 ‘파격 승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검사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 건건의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하자 해당 처분에 반대하고 나섰던 대표적인 이로 전해진다.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정부가 검찰개혁 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거취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 포기,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등 의혹이 제기돼도 자리를 지

켜 오다가, 이날 임기를 1년 3개월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사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광주고검장에 송강(29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했다. 송 검사는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불리며 통합진보당 사건,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현(30기) 대전지검장을 보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폭염 특보 속 뜨거운 광주·전남

일부 지역 열대야 현상도...10일까지 35도 안팎 불볕 더위 계속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일부지역에서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오는 5일까지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1일 최고체감온도도 완도 35.9도, 곡성 석곡 35.7도, 광주 조선대 35.6도, 영암 학산 35.6도, 무안 해제 35.3도, 구례·광양 34.8도, 담양 봉산·화순 백아면·보성 복내 34.6도 등으로 나타났다.

2일 아침최저기온은 23~25도, 낮최고기온은 30~34도, 3일 아침최저기온은 22~25도, 낮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상된다. 4일 아침최저기온은 22~24도, 낮최고기온은 29~34도를 보일겠다.

오는 10일까지 35도까지 오르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는 셈이다.

폭염 특보도 이어진다. 기상청은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완도에 내려진 폭염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

했다.

현재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나주·장성·화순·보성·광양·영암·순천·광양·구례·곡성·완도)에 폭염경보가, 고흥·여수·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 사이 크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열대야 현상은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가리킨다.

광주 지역은 지난 30일 오후 6시 1분부터 7월 1일 오전 7시까지 기온이 25.7도에 머물렀다. 무안 운남 26도, 거문도 25.9도, 목포·영암 25.8도, 강진 25.7도, 영광 영산 25.6도, 장흥 25.5도 등 전남 지역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실내의 작업장과 눈·발, 도로 등에서는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며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창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창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창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